

두암동에 수영장 갖춘 명품 복합체육센터 들어선다

삼정초 부지 내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3년간 130억원 투입
북구청, 내일 두암종합복지관서 학부모·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학교 공간이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교가 오로지 학생들이 학습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수 감소로 남은 교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도 좋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활용 가능한 공간이 늘고 있어 복합화 시설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이처럼 학교가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정부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생활 SOC확충에 총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대상지로 11개 학교를 선정했다.
광주시 북구도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부지를 활용한 복합화 사업에 공모해 '반다비 복합체육센터'가 선정되는 성과를 냈으며, 올해부터

3년간 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대상 지역인 두암동은 광주시 7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중 5개 단지 7120세대가 거주하고, 북구 장애인인 26%인 5647명이 거주한 지역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인구의 20.7%인 1만 5665명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지역으로 꼽힌다.
주민들은 이 같은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두암·풍암동 주민 2만 5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동의서를 북구에 제출하기도 했다.
구도심인 두암동의 열악한 생활 편의시설 개선을 고민하던 북구도 주민과 뜻을 같이하고, 대정부 설득 등을 통해 복합체육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북구는 두암동 삼정초 부지를 활용해 4000㎡(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생활밀착형 인프라인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 1층은 일반인과 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



광주시 북구 삼정초등학교에 조성되는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조감도

는 수영장과 휴게실, 2층은 헬스장과 다목적실, 공동육아나눔터를 마련해 체력단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하 1층은 주차장이 조성된다.

북구는 체육센터 공사시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 당초 학교 출입구를 수영장 주 출입구와 주차동선을 별도 분리하고, 학생의 학습권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센터와 학교시설도 완전 분리할 계획

이다.
북구는 이번 사업에 대한 학부모 민원을 방지하고, 절대적 동의를 얻기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을 강화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6일 삼정초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1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고 현재 재학생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는 학생 재배치나 학교통합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이 자녀 재학 중 학교 통폐합 등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북구도 19일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삼정초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시설 취지와 추진 과정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방안 등을 설명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반다비 복합체육센터가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질을 더욱 높이고 평생교육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대한민국 인공지능 4대 강국 전인차

4차산업혁명위 민간위원장
광주서 첫 간담회 개최
2024년까지 4116억원 투입
인프라 조성·창업 기업 성장 등 추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대한민국 AI 포럼 개최, 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 등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 있는 광주에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중앙·지방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 첫 간담회를 지난 1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첫 번째 중앙·지방 민간위원장 간담회를 광주에서 개최한 것은 그동안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광주시의 당찬 도전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수범사례로 2024년까지 4116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지방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졌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신청해 최종 확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을 육성해 인공지능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융합 인프라 조성,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융합인재 양성, 융합형 연구개발(R&D) 등의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산업융합 인프라는 대지면적 4만6200㎡, 연면적 2만4250㎡ 규모로 데이터센터, 창업동, 실증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해 시설통사를 착공하고

2023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연산능력 88.5PF(초당 8.85조 번 연산), 저장용량 107PB (10MB 파일 10.7억 개 저장)에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환경을 갖추고, 실증동에서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제품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80여종의 장비를 구축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에게는 시대발전을 선도하는 소명의식, 강한 도전정신과 문제의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창의성과 상상력 등 특별한 DNA가 있다. 이를 동력삼아 인공지능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엔플레이스 투자 유치

빛그린산단 내 1천만달러 규모

광주시는 17일 "일본 도쿄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기업 ㈜엔플레이스가 빛그린산업단지 임주를 확정하고 1000만달러 상당의 외국인직접투자신고를 지난 1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7월 일본발 수출규제 이후 한일 간 무역갈등 국면이 장기화하고,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일본기업의 실투자를 이끌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엔플레이스는 일본 내 자동차부품 대형유통망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 내 점유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알짜기업이다. 최근에는 가전제품을 출시하는 등 생활가전영

역까지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 1위 자동차유통대형유통기업인 ㈜오토박스세븐, 70년 전통의 생활가전 대기업인 ㈜야마젠그룹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등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엔플레이스는 연내에 한국법인을 설립한 뒤 빛그린산업단지 내 2000평 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착공해 2021년 12월부터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김성호 ㈜엔플레이스 대표는 "최근 대일외교 경색에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외국기업의 경영활동과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점, 인공지능(AI)산업과 융합한 산업플랫폼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양림동 2곳에 3·1만세운동 상징 게이트 설치

광주 남구는 "광주 3·1만세운동 태동지인 양림동 3·1만세운동길 2곳에 높이 4m 크기의 조형물(투시도)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3·1만세운동길 상징 조형물은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1억여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징 게이트 조형물은 상단에 3·1만세운동의 숫자 3을 상징하는 물결 모양의 가로 바와 숫자 1을 나타내는 기둥을 설치하는 형태로 제작된다.
가로 바에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운동에 나선 시민의 모습을 표현한 미니 동상과 음(파랑)



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기의 태극 문양 등이 배치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